

청혼

단막 희극

안톤 체호프 (1888)

번역: 핀볼즈(StageText 튜토리얼용)

때: 19세기 말, 어느 가을날 오후

곳: 추부코프의 시골 저택 응접실

등장인물

스테판 스테파노비치 추부코프 — 지주

나탈리야 스테파노브나 — 추부코프의 딸, 스물다섯 살

이반 바실리에비치 로모프 — 추부코프의 이웃 지주. 건장하고 기운은 좋지만 몹시 의심이 많다

무대는 추부코프의 시골 저택, 응접실.

(로모프, 연미복에 흰 장갑을 끼고 들어온다. 추부코프가 일어나 맞는다.)

추부코프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반 바실리에비치! 이렇게 반가울 데가! (손을 꼭 잡는다) 이거 정말 뜻밖이네, 이 사람아... 잘 지냈나?

로모프 덕분에요.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추부코프 그럭저럭 살지, 자네 기도 덕에, 뭐 어찌고저찌고. 앓아, 앓으라고... 이웃을 그렇게 잊고 살면 안 되지, 이 사람아. 그런데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연미복에 장갑에, 어찌고저찌고. 어디 가는 길인가, 우리 보배?

로모프 아닙니다. 어르신을 뵈러 온 것뿐입니다, 존경하는 스테판 스테파노비치.

추부코프 그럼 연미복은 왜 입었나, 이 귀한 사람아? 새해 인사라도 온 것처럼!

로모프 그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추부코프의 팔을 잡는다) 존경하는 스테판 스테파노비치, 부탁이 하나 있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르신께 도움을 청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어르신은 늘,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요.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스테판 스테파노비치. (물을 마신다)

추부코프 (방백) 돈 빌리러 왔군! 안 줘! (큰 소리로) 무슨 일인가, 이 미남아?

로모프 그게, 존경하는 스테판 스테파니치... 아니, 스테파노비치 존경...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몹시 흥분해 있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어르신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럴 자격은 없고... 어르신 도움을 바랄 권리도 없지만...

추부코프 아, 빙빙 돌리지 말고, 이 사람아! 툭 떨어놔! 응?

로모프 잠깐만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따님 나탈리야 스테파노브나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추부코프 (기빠서) 이 사람 좀 봐! 이반 바실리에비치! 다시 한번 말해봐, 못 알아들었어!

로모프 영광스럽게도 청혼을...

추부코프 (말을 가로막으며) 이 사람아... 이렇게 기쁠 데가, 뭐 어찌고저쩌고... 그래, 그렇지, 그런 거지. (로모프를 껴안고 입을 맞춘다)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늘 바라던 일이야. (눈물을 흘린다) 자네를 내 아들처럼 아꼈네, 이 사람아. 하느님이 두 사람에게 사랑과 은총을, 어찌고저쩌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지? 기빠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 아주 못 차려! 아, 진심으로... 나타샤를 불러오지, 어찌고저쩌고.

로모프 (감격해서) 존경하는 스테판 스테파노비치, 따님이 승낙할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추부코프 당연하지, 이 사람아, 그럼... 승낙 안 할 리가 있나! 사랑에 푹 빠져서, 아주 상사병 걸린 고양이처럼, 어찌고저쩌고... 금방 올게! (나간다)

로모프 춤다... 온몸이 떨려,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중요한 건 마음을 정하는 거야. 생각하고, 망설이고, 말만 늘어놓고, 이상형이니 진정한 사랑이니 찾다 보면... 평생 결혼 못 해... 으으! 춤다! 나탈리야 스테파노브나는 살림 잘하고, 얼굴도 괜찮고, 교양도 있고... 더 뭘 바라겠어? 그런데 흥분해서 귀가 웅웅거리네. (물을 마신다)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첫째, 나는 벌써 서른다섯이야.

말하자면 위험한 나이지. 둘째, 규칙적이고 조용한 생활이 필요해... 심장이 두근거리고, 툭하면 흥분하고, 걸핏하면 속이 뒤집혀... 지금도 입술이 떨리고, 오른쪽 눈썹이 꿈틀거려... 제일 심각한 건 잠이야. 자리에 누워 막 잠들려고 하면, 갑자기 왼쪽 옆구리가 이렇게 쿵! 당겨. 그게 어깨로, 머리로 올라와...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좀 걷다가, 다시 눕고, 막 잠들려고 하면 또 쿵! 그게 스무 번씩이나...
나탈리야 스테파노브나가 들어온다.

나탈리야 어머, 웬일이예요! 당신이었군요. 아빠가 "나가 봐, 장사꾼이 물건 가지러 왔다"고 하시길래. 안녕하세요, 이반 바실리에비치!

로모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나탈리야 스테파노브나.

나탈리야 앞치마 두르고 이런 차림이라 죄송해요... 말리려고 콩을 까던 중이라. 왜 그렇게 오랫동안 안 오셨어요? 앉으세요. (두 사람 앉는다) 점심 좀 드실래요?

로모프 아니요, 괜찮습니다. 먹고 왔습니다.

나탈리아 그럼 담배라도... 여기 성냥이요... 날씨가 이제야 좋아졌네요. 어제는 비가 너무 와서 일꾼들이 하루 종일 손을 났어요. 건초는 얼마나 쌓으셨어요? 저는 욕심을 부려서 밭 하나를 통째로 베어냈는데, 지금은 후회돼요. 썩을까 봐서요. 좀 기다릴 걸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연미복을 입으셨네! 별일이네요! 무도회라도 가세요? 아니, 잘 어울리긴 하는데... 말씀해보세요,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로모프 (흥분해서) 그게, 존경하는 나탈리아 스테파노브나... 사실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하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물론 놀라실 테고, 어쩌면 화를 내실지도 모르지만... (방백) 지독하게 춥다!

나탈리아 무슨 일이세요? (사이) 네?

로모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나탈리아 스테파노브나, 저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이 댁을 알고 지내는 영광을 누려왔습니다. 제게 땅을 남겨주신 돌아가신 숙모님과 그 남편분도 아버님과 돌아가신 어머니를 늘 깊이 존경하셨습니다. 로모프 가문과 추부코프 가문은 언제나 가장 우호적인, 아니, 거의 가족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 땅은 이 댁 땅과 바로 붙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 황소 풀밭이 이 댁 자작나무 숲과 맞닿아 있지요.

나탈리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제 황소 풀밭"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당신 거예요?

로모프 네, 제 겁니다.

나탈리아 무슨 말씀이세요? 황소 풀밭은 우리 거예요, 당신 게 아니라!

로모프 아닙니다, 제 겁니다, 존경하는 나탈리아 스테파노브나.

나탈리아 처음 듣는 얘기네요. 어떻게 그게 당신 거예요?

로모프 어떻게라니요? 이 댁 자작나무 숲과 불탄 늪 사이에 끼어 있는 그 황소 풀밭 말입니다.

나탈리아 네, 네... 그거 우리 거예요.

로모프 아니요, 잘못 아신 겁니다, 존경하는 나탈리아 스테파노브나. 제 겁니다.

나탈리아 생각해 보세요, 이반 바실리에비치! 그게 언제부터 당신 거였다는 거예요?

로모프 언제부터라니요? 제가 기억하는 한 늘 그랬습니다.

나탈리아 정말이지, 그걸 믿으라고요!

로모프 문서를 보시면 알 겁니다, 존경하는 나탈리야 스테파노브나. 황소 풀밭이 한 때 분쟁 대상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요. 다들 게 없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 숙모님의 할머니가 그 풀밭을 아버님의 할아버님 댁 농노들에게 영구히 무상으로 쓰게 해주셨습니다. 대신 농노들은 할머니께 벽돌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지요. 그 농노들이 풀밭을 사십 년 동안 무상으로 쓰다 보니 제 것처럼 여기는 버릇이 생겼고, 그러다가...

나탈리야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증조할아버지도, 우리 땅은 불탄 늪까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소 풀밭은 우리 거예요. 뭘 다투겠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바보 같은 얘기에요!

로모프 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탈리야 스테파노브나!

나탈리야 아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면 저를 놀리시는 거예요... 놀랍네요! 삼백 년 가까이 우리 땅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게 아니라니! 이반 바실리에비치, 제 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 풀밭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다 해서 5데샤티나에, 값이래야 300루블쯤 될까. 하지만 불공평한 건 참을 수 없어요. 뭐라고 하셔도 좋은데, 불공평한 건 못 참아요.

로모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발! 아버님의 할아버님 댁 농노들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 숙모님의 할머니께 벽돌을 구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숙모님의 할머니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생각으로...

나탈리야 숙모니 할아버지니 할머니니,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풀밭은 우리 거예요. 그게 다예요.

로모프 제 겁니다.

나탈리야 우리 거예요! 이틀 내내 증명해보시든지, 연미복을 열다섯 벌 꺼입으시든지, 그래도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우리 거! 남의 건 바라지도 않고, 내 건 하나도 안 내놓을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로모프 나탈리야 이바노브나, 저는 풀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원칙 문제입니다. 원하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나탈리야 제가 당신한테 선물로 드릴 수는 있죠. 제 거니까요! 이반 바실리에비치, 당신 행동은 아무리 좋게 봐도 이상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을 좋은 이웃으로, 친구로 생각했어요. 작년에는 우리 탈곡기도 빌려드렸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 탈곡은 11월까지 미뤄졌는데. 그런데 우리를 무슨 떠돌이 취급하시네요. 내 땅을 나한테 선물한다니! 아니, 정말, 그건 이웃답지 않아요! 제 생각엔 뻔뻔하기까지 해요, 솔직히 말하면...

로모프 그럼 제가 남의 땅을 가로챘다는 겁니까? 아가씨, 저는 평생 남의 땅을 가로챈 적이 없고, 누구도 그런 소리를 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재빨리 물병으로 가서 물을 더 마신다) 황소 풀밭은 제 겁니다!

나탈리아 거짓말이에요, 우리 거예요!

로모프 제 겁니다!

나탈리아 거짓말이에요! 증명할게요! 오늘 당장 우리 일꾼들을 풀밭에 보낼 거예요!

로모프 뭐라고요?

나탈리아 우리 일꾼들이 오늘 바로 거기 가서 풀을 벨 거예요!

로모프 그 사람들 목을 비틀어버리겠어!

나탈리아 어디 해보세요!

로모프 (가슴을 움켜쥐며) 황소 풀밭은 제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 거!

나탈리아 소리 지르지 마세요! 자기 집에서는 목이 쉬도록 지르셔도 좋은데, 여기서는 좀 참아주시죠!

로모프 아가씨,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심장 두근거림만 아니면, 속이 이렇게 뒤집히지만 않으면, 제가 다른 식으로 말했을 겁니다! (고함친다) 황소 풀밭은 제 거야!

나탈리아 우리 거예요!

로모프 제 거!

나탈리아 우리 거!

로모프 제 거!
추부코프가 들어온다.

추부코프 무슨 일이야? 뭘 그렇게 소리 질러?

나탈리아 아빠, 이분한테 말씀해주세요. 황소 풀밭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이분 거예요?

추부코프 (로모프에게) 이 사람아, 풀밭은 우리 거지!

로모프 아니, 잠깐만요, 스테판 스테파니치, 어떻게 그게 어르신 겁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 숙모님의 할머니가 어르신 할아버님 댁 농노들에게 풀밭을 잠시 무상으로 쓰게 해주셨습니다. 농노들이 사십 년을 쓰다 보니 제 것처럼 익숙해졌고, 그러다가...

추부코프 잠깐, 우리 보배... 자네가 잊은 게 하나 있어. 농노들이 자네 할머니께 돈을 안 냈지, 어찌고저찌고. 왜냐, 풀밭이 분쟁 중이었으니까, 어찌고저찌고.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알아, 우리 거라는 걸. 자네가 지도를 안 본 거야.

로모프 제 거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추부코프 못 증명해, 이 사람아.

로모프 합니다!

추부코프 이 사람아,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소리 지른다고 증명되는 게 아니야. 나는 남의 걸 바라지 않고, 내 것도 안 내놔. 내가 왜 그래야 해? 그리고 이거 알아 두라고, 이 사람아. 자네가 계속 이걸 두고 따질 거면, 나는 자네한테 주기보다 차라리 농노들한테 넘기겠어. 그렇게 알아!

로모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르신이 무슨 권리로 남의 재산을 마음대로 넘깁니까?

추부코프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알아. 그리고 젊은이, 나는 그런 말투로 말 듣는데 익숙하지 않아, 어찌고저찌고. 젊은이, 나는 자네보다 나이가 두 배야. 흥분하지 말고 말하게, 어찌고저찌고.

로모프 아니, 지금 저를 바보로 알고 놀리시는 거죠! 제 땅을 어르신 거라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말하라고요! 좋은 이웃은 그렇게 안 합니다, 스테판 스테파니치! 어르신은 이웃이 아니라 땅 도둑이에요!

추부코프 뭐야? 지금 뭐라고 했어?

나탈리아 아빠, 지금 당장 일꾼들을 풀밭으로 보내세요!

추부코프 지금 뭐라고 했나, 이보게?

나탈리아 황소 풀밭은 우리 거고, 절대 안 내놔요, 안 내놔, 안 내놔!

로모프 두고 보시죠! 법원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때 보여드리죠!

추부코프 법원? 법원에 가져가라고, 어찌고저찌고! 가져가! 내가 자네를 알지. 자네는 법원 갈 구실만 찾고 있는 사람이야, 어찌고저찌고... 소송꾼 같으니! 자네 집안이 다 그랬어! 다!

로모프 제 집안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로모프 가문은 다 명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르신 할아버님처럼 공금 횡령으로 재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추부코프 자네 로모프 집안엔 미친 피가 흘러, 하나같이!

나탈리아 다요, 다, 다!

추부코프 자네 할아버지는 술고래였고, 작은 숙모, 그래, 나스타샤 미하일로브나는 건축가랑 도망쳤지, 어찌고저찌고.

로모프 어르신 어머니는 곱사등이였죠. (가슴을 움켜쥔다) 옆구리가 당겨... 머리가... 도와주세요! 물!

추부코프 자네 아버지는 먹보에 도박꾼이었어!

나탈리아 당신 숙모 같은 험담꾼은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

로모프 왼발에 감각이 없어... 당신들은 음모꾼이야... 아, 심장이!... 지난 선거 전에 당신이 뇌... 뇌물을... 눈앞에 별이... 제 모자 어디 있죠?

나탈리아 비열해! 부정직해! 야비해!

추부코프 자네야말로 악독하고 겉과 속이 다른 음모꾼이야! 그래!

로모프 여기 모자가... 심장이!... 어디로... 문이 어디죠? 아!... 죽을 것 같아... 발이 완전히 마비됐어... (문으로 간다)

추부코프 (따라가며) 다시는 내 집에 발 들이지 마!

나탈리아 법원에 가져가세요! 두고 보자고요!
로모프, 비틀거리며 나간다.

추부코프 귀신이나 잡아가라! (흥분해서 서성인다)

나탈리아 저런 악당이! 저런 걸 보고 어떻게 이웃을 믿어요!

추부코프 악당! 허수아비 같은 놈!

나탈리아 괴물이에요! 우리 땅을 가로채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한테 욕까지 해요.

추부코프 그 눈먼 닭이, 그래, 그 순무 도깨비가, 뽀뽀하게 청혼까지 하러 와, 어찌고저 찌고! 뭐? 청혼을!

나탈리아 무슨 청혼이요?

추부코프 아니, 그놈이 너한테 청혼하러 왔다는 거지.

나탈리아 청혼? 저한테요? 왜 그걸 이제 말씀하세요?

추부코프 그래서 연미복을 입고 왔더군. 소시지 속 같은 놈! 쭈글쭈글한 못난이!

나탈리아 저한테 청혼을? 아! (안락의자에 쓰러지며 울부짖는다) 데려와요! 다시! 아! 여기로 데려와요.

추부코프 누구를 데려와?

나탈리아 빨리요, 빨리! 저 아파요! 데려와요! (히스테리를 부린다)

추부코프 뭐야? 너 왜 그래? (머리를 감싸 쥐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놈인가! 총으로 쏘고 말겠다! 목을 매겠다! 애를 우리가 망쳤어!

나탈리아 죽을 것 같아요! 데려와요!

추부코프 에잇! 알았어, 금방. 소리 지르지 마!

(뛰어나간다. 사이. 나탈리야 스테파노브나가 울부짖는다.)

나탈리야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데려와요! 데려와! (사이)

(추부코프가 뛰어 들어온다.)

추부코프 온대, 어찌고저찌고, 귀신이나 잡아갈 놈! 휴! 네가 직접 얘기해. 나는 싫어...

나탈리야 (울부짖는다) 데려와요!

추부코프 (고함친다) 온다고 했잖아! 아, 하느님, 다 큰 딸 아비 노릇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라니! 목을 따고 말겠다! 진짜로! 우리가 그 사람을 욕하고, 몰아세우고, 쫓아냈어. 다 너 때문이야... 너!

나탈리야 아니에요, 아빠 때문이에요!

추부코프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아. (로모프가 문가에 나타난다) 이제 네가 직접 얘기해. (나간다)
로모프, 지친 모습으로 들어온다.

로모프 심장이 무섭게 뛰어... 발이 마비됐고... 옆구리가 계속 당겨.

나탈리야 용서하세요, 이반 바실리예비치. 우리 모두 좀 과열됐어요... 이제 기억나요. 항상 풀밭은 정말 당신 거예요.

로모프 심장이 무섭게 뛰어... 제 풀밭이... 눈썹이 양쪽 다 떨려...

나탈리야 풀밭은 당신 거예요, 네, 당신 거... 앉으세요... (두 사람 앉는다) 우리가 틀렸어요...

로모프 저는 원칙 때문에 그런 겁니다... 땅은 저한테 대수롭지 않아요. 하지만 원칙이...

나탈리야 네, 원칙이요, 그렇죠... 이제 다른 얘기를 하죠.

로모프 더구나 저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제 숙모님의 할머니가 아버님의 할아버님 댁 농노들에게 그 땅을...

나탈리야 네, 네, 그건 이제 그만해요... (방백) 어떻게 말을 꺼내게 하지... (큰 소리로) 사냥은 곧 나가세요?

로모프 추수가 끝나면 멧닭을 잡아볼까 합니다, 존경하는 나탈리야 스테파노브나. 아, 그런데 들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게 이런 불운이! 아시는 제 개 우가다이가 다리를 절어요.

나탈리야 어머, 저런! 왜요?

로모프 모르겠어요... 접질렸거나, 다른 개한테 물렸거나... (한숨) 제일 좋은 개인데, 돈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로노프한테 125루블을 줬거든요.

나탈리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반 바실리에비치.

로모프 저는 아주 싸게 샀다고 생각합니다. 일급 개예요.

나탈리아 아빠는 오토카타이를 85루블에 사셨는데, 오토카타이가 우가다이보다 훨씬 나아요!

로모프 오토카타이가 우가다이보다 낫다고요? 무슨 말씀을! (웃는다) 오토카타이가 우가다이보다 낫다니!

나탈리아 물론 낫죠! 오토카타이는 아직 어리니까 좀 더 자라야 하는 건 맞지만, 체격이나 혈통으로 보면 볼차네츠키 덩 개들보다도 나아요.

로모프 죄송하지만, 나탈리아 스테파노브나, 그 개가 아랫니가 들어간 부정교합이라는 걸 잊으셨군요. 부정교합이면 사냥개로는 틀렸어요!

나탈리아 부정교합이라고요? 처음 듣네요!

로모프 장담합니다. 아래턱이 위턱보다 짧아요.

나탈리아 재보셨어요?

로모프 네. 물론 쫓아가는 건 괜찮지만, 뭘 물어야 할 때는...

나탈리아 첫째, 우리 오토카타이는 순혈종이에요. 자프라가이와 스타메스카의 아들이라고요. 당신 개는 혈통을 알 수도 없잖아요... 늙었고, 다 닳은 마차 말처럼 못생겼고.

로모프 늙긴 했죠. 하지만 오토카타이 다섯 마리를 준다고 해도 안 바꿉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우가다이는 개예요. 오토카타이는, 글썄, 비교하는 게 우스워요... 오토카타이 같은 개는 누구한테나 있어요... 나무 밑마다 한 마리씩 있을 정도예요. 25루블이면 후하게 준 겁니다.

나탈리아 오늘 당신 안에 반박의 악마가 들어앉았네요, 이반 바실리에비치. 처음엔 풀밭이 당신 거라고 하고, 이제는 우가다이가 오토카타이보다 낫다고 하고. 저는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싫어요. 오토카타이가 당신의 그 멍청한 우가다이보다 백 배 낫다는 걸 당신도 아주 잘 알잖아요. 왜 아니라고 하세요?

로모프 나탈리아 스테파노브나, 저를 눈이 멀었거나 바보로 여기시는군요. 오토카타이는 부정교합이에요, 아시겠어요?

나탈리아 거짓말이에요.

로모프 부정교합이에요!

나탈리아 거짓말!

로모프 왜 소리를 지르십니까, 아가씨?

나탈리아 왜 헛소리를 하세요? 끔찍해요! 당신 우가다이는 진작 총으로 쏘줘야 할 나이인데, 그걸 오토카타이랑 비교해요!

로모프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할 수 없겠네요. 심장이 뛰어서.

나탈리아 제가 보니까, 사냥꾼들 중에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제일 크게 다투더라고요.

로모프 아가씨, 제발 조용히 하세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소리친다) 입 다물어요!

나탈리아 오토카타이가 당신 우가다이보다 백 배 낫다고 인정하기 전에는 안 다물어요!

로모프 백 배 못하죠! 당신 오토카타이는 목이나 매라지! 머리도... 눈도... 어깨도...

나탈리아 당신의 그 멍청한 우가다이는 목 땀 필요도 없어요. 벌써 반은 죽었으니까!

로모프 (울며) 입 다물어요! 심장이 터져요!

나탈리아 안 다물어요.
(추부코프가 들어온다.)

추부코프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나탈리아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어느 개가 더 나아요? 우리 오토카타이에요, 이분의 우가다이에요?

로모프 스테판 스테파노비치, 한 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오토카타이가 부정교합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오?

추부코프 그렇다고 치자, 그게 어때서? 그래도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개야, 어찌고저찌고.

로모프 그런데 제 우가다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정말로요?

추부코프 흥분하지 마, 우리 보배... 내 말 좀 들어봐... 자네 우가다이는 분명 장점이 있어... 순종이고, 다리도 튼튼하고, 가슴도 잘 벌어졌고, 어찌고저찌고. 하지만 이 사람아,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 개는 결점이 둘 있어. 늙었고, 주둥이가 짧아.

로모프 죄송합니다, 심장이... 사실만 봅시다... 기억하시겠지만, 마루신스키 사냥에서 제 우가다이는 백작님 개와 나란히 달렸습니다. 어르신 오토카타이는 1베르 스타나 뒤쳐졌고요.

추부코프 뒤쳐진 건 백작 댁 사냥 물이꾼이 채찍으로 때려서야.

로모프 그럴 만했죠. 개들이 다 여우를 쫓는데, 오토카타이는 양을 물고 늘어졌으니까요!

추부코프 거짓말!... 이 사람아, 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만 다투자고. 자네가 시작한 건, 누구나 남의 개를 질투하기 때문이야. 그래, 우리 다 그래! 자네도 마찬가지야! 어떤 개가 자네 우가다이보다 낫다 싶으면 바로 이러쿵저러쿵... 어찌고저찌고... 나는 다 기억해!

로모프 저도 기억합니다!

추부코프 (놀리며) 저도 기억합니다... 뭘 기억하는데?

로모프 심장이... 발이 마비됐어... 못 하겠어...

나탈리아 (놀리며) 심장이... 당신이 무슨 사냥꾼이에요? 부엌 난로 위에 누워서 바퀴벌레나 잡아야 할 사람이, 여우를 쫓는다니! 심장이!

추부코프 그래, 정말, 자네가 무슨 사냥꾼이야? 그 심장 가지고 집에만 앉아 있어야지, 짐승을 쫓긴 뭘 쫓아. 사냥은 가도 좋아, 하지만 자네는 사람들과 싸우고 남의 개에 시비 걸러 가는 거잖아, 어찌고저찌고. 화가 나려니까 그만하자. 어쨌든 자네는 사냥꾼도 아니야!

로모프 그럼 어르신은 사냥꾼입니까? 사냥 가는 이유가 백작님한테 아부하고 음모를 꾸미려는 거잖아요... 아, 심장이!... 어르신은 음모꾼이에요!

추부코프 뭐야? 내가 음모꾼? (소리친다) 입 다물어!

로모프 음모꾼!

추부코프 애송이! 강아지!

로모프 늙은 쥐새끼! 위선자!

추부코프 입 다물어, 안 그러면 자고새처럼 썩버릴 테니! 이 멍청이!

로모프 다 알아요, 아, 심장이!, 돌아가신 사모님이 어르신을 때리셨다는 거... 발이... 관자놀이가... 별이... 쓰러진다, 쓰러진다!

추부코프 자네는 가정부 치마폭에 잡혀 살잖아!

로모프 아, 아, 아... 심장이 터졌어! 어깨가 떨어졌어... 어깨가 어디 갔지? 죽는다. (안락의자에 쓰러진다) 의사를! (기절한다)

추부코프 애송이! 젖비린내 나는 놈! 멍청이! 속이 다 안 좋아! (물을 마신다) 안 좋아!

나탈리아 당신이 무슨 사냥꾼이에요? 말 위에도 못 앉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아빠, 이분 왜 이래요? 아빠! 보세요, 아빠! (비명) 이반 바실리에비치! 죽었어요!

추부코프 속이 안 좋아!... 숨이 안 쉬어져!... 공기!

나탈리아 죽었어요. (로모프의 소매를 당긴다) 이반 바실리에비치! 이반 바실리에비치!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죽었어. (안락의자에 쓰러진다) 의사, 의사를!

(히스테리를 부린다)

추부코프 아!... 뭐야? 무슨 일이야?

나탈리아 (울부짖는다) 죽었어요... 죽었어!

추부코프 누가 죽어? (로모프를 본다) 정말이네! 이런! 물! 의사를! (로모프의 입에 컵을 댄다) 마셔!... 안 마시네... 죽은 거야, 어찌고저찌고... 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놈이야! 왜 아직 머리에 총알을 안 박았지? 왜 아직 목을 안 뺐어? 뭘 기다리는 거야? 칼을 쥐! 총을 쥐! (로모프가 움직인다) 깨어나는 것 같은데... 물 좀 마셔! 그렇지...

로모프 별이 보여... 안개가... 여기가 어디죠?

추부코프 얼른 결혼해버려, 그리고, 에이, 귀신이나 잡아가라! 애가 승낙했어! (로모프의 손을 딸의 손에 얹는다) 승낙했다고, 어찌고저찌고. 내가 축복한다, 어찌고저찌고. 나를 좀 내버려둬!

로모프 (일어나며) 네? 뭐라고요? 누구한테요?

추부코프 승낙했다고! 응? 입 맞춰, 그리고 마음대로 해!

나탈리아 (울부짖는다) 살아 있어요... 네, 네, 저 승낙해요...

추부코프 입 맞춰!

로모프 네? 누구한테요? (두 사람 입을 맞춘다) 아주 좋군요. 죄송하지만,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아, 이제 알겠어요... 심장이... 별이... 행복합니다. 나탈리아 스테파노브나... (그녀의 손에 입 맞춘다) 발이 마비됐어...

나탈리아 저... 저도 행복해요...

추부코프 어깨가 다 가볍네... 휴!

나탈리아 그런데... 그래도 이제는 인정하시죠. 우가다이가 오토카타이보다 못하다는 거.

로모프 낫습니다!

나탈리아 못해요!

추부코프 자, 가정의 행복이 이렇게 시작되는군! 샴페인 가져와!

로모프 낫다고요!

나탈리아 못해! 못해! 못해!

추부코프 (딸의 소리를 덮으려 고함친다) 샴페인! 샴페인!

막.